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3년 2월 2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바이오헬스과 강혁기 과장(02-2110-4761), 김종락 사무관(5661)		

"한국,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논의 선도"
- '14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 총회 국내 개최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: 홍석우)는 국가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7차 당사국 총회를 '14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임('12년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)

○ 동 총회에는 당사국(165개국) 대표단, 각국(비당사국 포함) 관련 기업 및 NGO 등 2000여명이 참가

※ 바이오안전성 의정서
생물다양성협약의 추가 의정서로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LMO의 수출입 등 국가간 이동, 취급,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제협약

□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아젠다는 새로운 유전자변형생물체(이하 LMO, Living Modified Organisms)에 대한 "위해성평가 가이던스" 채택 여부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"사회·경제적 고려 사항"에 대한 명확한 개념 마련 등 임

○ 지경부는 "위해성평가 가이던스"의 채택여부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당사국 간의 의견을 조정해나갈 계획임

* 위해성평가 가이던스 : 유전자변형 나무, 모기 등 새로 개발된 LMO에 대한 위해성 평가 항목 등을 제시한 새로운 지침으로, 현재 제출된 가이던스를 우선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과 채택하기 전에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

* 위해성평가 : LMO의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, 환경 등에 안전한지 평가하는 것을 말함

* 사회경제적 고려 : LMO 수입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,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임

□ 제7차 당사국총회 기간 중에 "나고야·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" 발효 가능성이 있어, 유럽, 일본 등 주요국의 동향을 파악하여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안을 마련하고 비준을 준비 중

* 나고야·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: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의 책임 및 구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의정서로 현재 10개국 비준, 추세를 감안할 때 '14년 하반기 중 발효 가능성 존재(40개국 비준 시 발효)

□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바, 환경부(생물다양성협약 총괄부처)와 3월 중 국내 당사국총회 개최도시를 선정하고, 당사국총회 준비위원회(가칭)를 구성하여 동 행사를 준비할 계획임

* 생물다양성 협약 : 생물다양성을 보전,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

□ 지경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LMO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2월 22일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한 바 있음('13.12월 시행)

○ 주요내용으로는 LMO를 이용·개발하는 연구시설의 폐쇄 시 신고

○ 정부가 수입 LMO의 통관 이전에 수입 승인(또는 신고)한 LMO와 동일한 품목인지 여부를 검사하고, LMO 연구·생산시설, 보관장소 주변의 환경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신설 등 임

□ 한편, 현재 국내에는 상업용으로 재배중인 LMO는 없으며 옥수수, 대두 등 식품·사료용 LMO를 전량 수입하고 있음

○ LMO 수입규모는 '11년 785만톤(식품용 24%, 사료용 76%, 전년대비 8% 감소)이며, 주로 미국에서 수입(81%)하고 있음